

2009년도 제 6 차 아·태 전략 포럼
결과 요약

2009년 10월 23일 (금) 07:00 ~ 09:30
서울, 롯데호텔 36층 피코룸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KOPEC)

I. 개 요

1. 일 시: 2009년 10월 23일 (금) 07:00 ~ 09:30
2. 장 소: 서울 롯데호텔 36층 피콧룸
3. 주 최: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4. 주 제: “2010년 G-20의 운영: 과제와 전략”
5. 프로그램
 - 사회: 양수길 KOPEC 회장
 - o 07:00 07:30 조찬환담
 - o 07:30 07:50 발제1. 기획재정부 신제윤 국제업무정책관리관
 - o 07:50 08:05 발제2. 외교통상부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
 - o 08:05 09:30 토론
6. 참 석 자: 총 16 명 (사회자 및 발제자 포함)

고상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융합연구실장
김기환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
김성인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심의관
김인철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남상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그룹장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박대식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 상무
박무종	코리아타임즈 사장
신용인	안진딜로이트회계법인 대표이사, KOPEC 감사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정책관리관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양수길	KOPEC 회장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시장연구실 연구위원
이영섭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재화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황기연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가나다순)

II. 회의 결과 요약

사회: 양수길 KOPEC 회장

□ 제 6차 아태전략포럼 개최 배경 및 목적

- 2010년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
 - 한국이 G20 체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국 간 협력이 중요함.
- KOPEC은 1980년 설립 이후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G20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G20 정상회의 개최를 기점으로 이제는 아·태지역 국가들도 변방적인 성향을 벗어나, 글로벌 이슈를 자기 일처럼 생각해야 함.
 - G20 편입으로 변방국 신세를 면한 KIA 국가(Korea, Indonesia, Austrailia) 중,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성공적으로 G20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발제: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정책관리관 “2010년 G-20의 운영: 과제와 전략”

□ G20의 연혁

- G20은 새로운 개념이 아님.
 - 1999년 아시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신흥국과 선진국과 협력이 필요성이 제기되어 미국이 독일에 의뢰하여 G20이 만들어짐.
 - 기존에는 다자간 협력에서 출발하였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정상회의 체제로 발전됨.
 -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비로소 제도화가 되었음.

□ 한국의 G20 의장국 및 정상회의 개최국 선정

- 의장국은 원래 국가들이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음.
 - 작년 재무장관회의에서 차기 의장국을 아시아 국가로 하자는 논의를 하다가 한국이 맡게 됨.
 - 2008년 11월 15일 갑자기 정상회의가 개최되면서 한국이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을 맡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2010년 정상회의를 유치하였음.

□ G20

- 제 1차 회의(워싱턴)
 - 금융위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슈들은 금융에 집중되어 있음.
 - 회계 법인의 역할, 은행규제와 같은 완전한 47개의 금융 중심 이슈들로 이루어져 있음.
- 제 2차 회의(런던)
 -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퍼져가는 과정에서 경제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쪽으로 옮겨감.
 - 금융이슈에서 실물 경제 이슈로 가게 됨.
 - 신뢰성 있는 정량적 수치를 많이 언급함.
- 제 3차 회의(피츠버그)
 - 일부의 경제 회복 징후로 인해 '위기 후 운영(Post-Crisis Management)'으로 초점을 옮기게 됨.
 - 그동안 미국의 숙원이었던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이슈를 제기함.
 - 이 문제에 관해서 적자국과 흑자국의 역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됨.
 - 미국의 주도로 "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라는 표어를 내세움.
- 제 4차 회의(캐나다)
 - 3차 회의에서 언급한 Framework에 대한 상호 점검을 할 예정임.
 - 이 과정에서 한국과 캐나다의 체계모니 다툼이 예상됨.

- IMF는 각국이 제출한 경제 운영 계획에 대해 일관성과 지속가능한 성 여부를 점검함.
- 이 점검 결과를 재무 차관 회의에 보고하고, 수정한 후 장관회의를 거쳐 정상회의에 보고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내년에 큰 이슈가 될 것임.

○ 1, 2, 3차 회의는 상대적으로 합의하기가 쉬웠음.

- 1차 회의 때는 금융이 최대 이슈였으므로, 금융 규제를 합리화에 대해 반대할 논리가 없었음.
- 2차 회의 때는 경제 위기 상황이었으므로, 거시 경제 공조화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없었음.
- 3차 회의 때는 세계적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었으므로, 미국의 소비에 의존하던 과거의 성장 패턴 재점검에 대해 모두들 쉽게 동의했음.

□ 한국의 과제

○ 위기 후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 앞서 수차례 이루어 졌던 출구 전략 관련 회의의 합의 내용을 심화하는 것이 필요함.
- G20 국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함.

○ Korea Summit의 고유한 의제 선정

- 미국과 중국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한국 고유의 이슈를 개발해, 거기에 관한 구조를 만들어, 거버넌스를 설계해 나가야 함.

발제: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2010년 G-20의 운영: 과제와 전략”

□ G20 개요

○ 제 1차 회의(워싱턴)

- 금융 시장 개혁과 관련하여 한국 측에서 5가지 규약을 전달했음.

- 거시경제조정(Macro-Economy Coordination),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신흥경제국에 대한 배려 등을 강조함.
- 정상회의 개최 전 이슈 개발(Issue Development) → 기본 원칙 정립(Building Block) → 성명서 발표(Declaration) 의 절차를 거침.
- 마지막 과정에서 "동등, 조정(Coordination)" 이라는 표현을 완곡하게 나타낸 "협력(Cooperation)"으로 포함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게 됨.

○ 제 2차 회의(런던)

- 1차 회의에서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4개의 위원회를 만듦.
 - 금융 시장 개혁, IMF 개혁이 최우선순위였음.
- 한국에서는 협력(Cooperation)과 담보(Standstill)에 관한 이행 메커니즘을 만들어 추진하게 됨.
 - 1월, 3월, 4월, 9월 까지 총 4번의 WTO 보고서가 발표되었음.

○ 제 3차 회의(피츠버그)

- 위기 후 운영 과제의 실행 방안에 관해 단순히 일반 원칙만 제시하는 방안과 싱글 유럽 시장처럼 아주 구체적인 경제 목표를 정하는 방안,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중간쯤에서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함.
- 글로벌 불균형은 한국에서 끌고 나가야 할 이슈이고, G20이 앞으로도 의미 있는 조직으로 남기 위해서도 피할 수 없는 이슈임.
 - 금융 위기 극복 이후, 금융 시장 이슈에서 벗어난 지속 가능한 동력을 찾아야 함.
 - Top-Down 전략이 아닌 Bottom-Up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각 국가들이 국가차원의 전략(National Strategy)을 공개하고 논의를 거쳐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함.
- G20의 제도화(Systemic Issue)에 있어 상대적으로 미국과 어려운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한국의 역할

- 한국은 과거에 G20 회의에서 제시되었던 이슈들을 이행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음.
 - 하지만 1년 동안의 이슈들을 제 자리에 정착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고 이것만 이루어 내도 큰 성과를 거두는 것임.

- 뿐만 아니라 IMF 개혁, 금융 시장 개혁 등 이 모든 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국제 경제에 있어서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에 엄청난 공헌이 되는 것임.
- 이와 관련한 홍보도 중요하므로,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함.

○ G20의 제도화에 있어 멤버십과 의장국 선정, 다른 국제기구들과의 관계 정립에 관한 고민이 필요함.

- 이러한 이슈들이 잘 해결되어야 G20이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임.
- 한국이 1년 동안 어떻게 하면 G20 국가들은 물론 G20이 아닌 국가들 까지도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창출해 내느냐 하는 것이 굉장한 이슈가 될 것임.

○ 새로운 이슈(New Issue)

- 기후 변화,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미시 경제이슈 등 다양한 과제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
- G20은 세계 경제 협력을 위한 선두 포럼 체제로서의 영향력 확대와 정체성 확립이 필요함.
 - G8의 주요 아젠다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해야 함.
- 비 G20 국가들의 질서와 기대의 관심을 잘 활용하여 G20의 비중을 높이도록 해야 함.
- 새로운 이슈를 개발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지속 가능성, 조화,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 실행가능성 등이 있음

자유토론

□ G20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및 그 외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체제에서도 상호 간 의의와 역할에 대한 협력 방안을 찾고 있음.

○ 2009년 11월 14~15일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의 역할과, 그것이 APEC에 있어 가지게 되는 의미를 설명해야 할 것임.

○ APEC 정상회의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이 과연 G20 정상회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APEC 국가들은 기대하고 있음.

□ 향후 수년 간, G20 정상회의에서는 출구전략과 위기 후 운영 과제에 관한 논의가 주요 이슈가 될 것임.

○ 출구전략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실업률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 회복의 징후를 포착해 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

○ 국내 이슈를 명확히 하고, 관련 분야에 IMF 전문가들을 초청해 구체적인 정리를 해 나가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는 선진국과 신흥국, 그리고 후진국들 사이에서 갈등을 지속시킬 것으로 보임.

○ G20에서는 G8에서처럼 선진국의 입장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후진국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접근을 해야 함.

○ 앞으로 환경규제가 더 심화되기 전에 이 문제를 이슈로 만들어 후진국에게 인프라나 경제성장 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국제 아젠다가 필요함.

□ 한국은 국제사회의 이슈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입장을 규명해야 함.

○ 이해관계가 민감한 이슈들을 과거 다른 국가들이 피해왔던 것처럼 한국도 피해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면으로 부딪혀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쪽으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입장 규명이 필요함.

○ 지역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ASEAN+3을 적극 활용하여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MEF(Major Economic Forum)은 기후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포럼임.
 - G20에서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3개국이 제외 되었는데, 이 세 나라들을 G20에 흡수하게 되면 G20에 있어 기후변화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

- DDA(Doha Development Agenda)가 G20 정상회의와 관련된 의제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에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
 - DDA 목표 달성 시한이 2010년 이므로 2010년 G20 의장국인 한국은 이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야 할 것임. “끝”